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Diaspora Film Festival

2014. 7. 26~7. 27

연수구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디아스포라(Diaspora)

- 그리스어로 '흩어지다, 퍼뜨리다'를 뜻함.
- 현대의 난민이나 이주민과 같이 어떤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영구히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의미.



목차

- 04 인사말
- 05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 06 상영시간표
- 07 상영작 안내
 - 08 SECTION I. 코리안 디아스포라
 - 11 SECTION II. 아시안 디아스포라
 - 12 SECTION III. 디아스포라 단편 모음 1
 - 14 SECTION IV. 디아스포라 단편 모음 2
 - 16 SECTION V. 그들이 말하다
- 18 부대행사

| 인사말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으로 제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0여 편의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들을 초청하여 이주민의 삶과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 등 다양한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국가적 배경이 어울려 공존하는 인천의 지역적 특징을 잘 살린 문화 사업으로 평가받으며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4년,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현재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의 삶과 그 존재가 이 시대와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 다채로운 영화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타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냉대와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익숙한 풍경처럼 놓여 있는, 민들레꽃과 같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단순히 이주민, 다문화 가정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켜 우리 사회에 있는 소수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영화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 익숙한 풍경 속에 있어 지나치기 쉬웠던 숨겨진 그들의 삶을 함께 지켜봐주고 이야기 나눔으로써, 진정한 이해를 통한 공존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영화감독 권철인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2014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에게 문화적 표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지향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7개 지역재단,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와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 인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 현재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 영화로 이야기합니다.
- 화교, 함께 사는 우리 이웃 - 인천에서 살아가는 화교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
- 여섯 빛깔 무지개 팟캐스트 - 성소수자들에게 직접 듣는 '한국에서 LGBT로 살아가기'
- 이야기더하기 - 찾아가는 이야기꾼의 세계 동화 공연
- 어라운드 인천 - 로컬버스터어와 인천스테이로 즐기는 마을 일상 여행
- 맛있는 인천, 지금지금 수다방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떠나는 필리핀 음식 문화 여행
- 함께 만드는 노래 - 인천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상인들의 스토리, 노래로 들어보세요
- 문화의 경계를 넘어 - 이주노동자들의 미디어교육,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봅니다
- 너, 나, 우리 반갑습니다 - 새터민이 바라본 인천, 그리고 우리들

■ 상영시간표

7/26(토)

소극장	13:30	디아스포라 단편모음2
	15:30	레옹+나는 노래하고 싶어 GV
	18:00	디아스포라 단편모음1 GV
교육실	13:00	그들이 말하다
	14:30	일로일로
	16:30	60만번의 트라이
	19:00	싱가포르에게, 사랑을 담아
야외마당	20:30	피부색깔=꿀색(배리어프리)

7/27(일)

소극장	12:30	디아스포라 단편모음1 GV
	14:30	그들이 말하다 GV
	16:30	레옹+나는 노래하고 싶어 GV + 공연
	18:30	영화가 책을 만났을 때 GV
교육실	14:00	피부색깔=꿀색(배리어프리)
	16:00	싱가포르에게, 사랑을 담아
	18:00	일로일로
야외마당	20:30	디아스포라 단편모음 2 GV

* GV : 영화상영이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 요일 및 상영관 별로 상영시간이 다르니, 놓치고 싶지 않은 영화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 모든 영화는 무료상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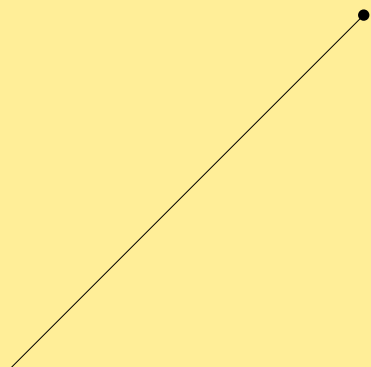


■ 상영작 안내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모두 17편입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인이나 재일조선인과 같은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바라보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노동자로, 혹은 난민으로 조국을 떠나 살고 있는 아시아 인의 이야기를 그린 “아시아 디아스포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모은 “그들이 말하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존재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이주/다문화의 주제를 다룬 짧은 영화들의 모음인 “디아스포라 단편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조선학교 럭비부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60만번의 트라이>와 정치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나 수 십 년째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싱가포르인들을 인터뷰한 <싱가포르에게, 사랑을 담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만든 단편들로 구성된 “그들이 말하다”의 네 편의 단편영화, 이제껏 만들어진 어떤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당차고 자존심 강한 탈북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영화 <명희>, 재일조선인 3세로 일본에서 나고 자란 감독이 쏟아내는 울분을 담은 <GALAPAGOS>와 같은 영화들은 특히 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별기어로 입양된 한국인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솔직하고 위트있게 그린 애니메이션 <피부색깔=꿀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됩니다.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문화의 결합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
허경



SECTION I .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섹션에서 소개할 영화는 모두 네 편입니다. 우선,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재외 한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다섯 살 때 벨기에로 입양되어 어느새 중년이 된 만화가 웅(전정식)의 자전적 이야기인 <피부색깔=풀색(배리어프리)>와 조선학교 럭비부의 고군분투를 그린 <60만번의 트라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혼란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한국인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편의 영화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노래단 ‘몽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나는 노래하고 싶어>와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바뀌는 남다른 특징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카멜레온이 주인공인 단편 애니메이션 <레옹>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조화를 이루어 공존할 때 어떤 아름다운 화음과 색채가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만번의 트라이

박사유, 박돈사 | 다큐멘터리 | 일본 | 106분 | 12세 관람가

7.26(토) 16:30 교육실

일본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선학교. 하지만 오사카조고의 럭비부 아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 믿음, 승리’의 구호 아래 60만 재일동포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경기에 나선다. 오사카조고 럭비부는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60만번의 트라이>는 럭비부 아이들의 투혼과 경쾌한 성장을 다룬 작품이다.



Director 박사유, 박돈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조선학교의 기록을 시작으로 2012년 AFTER SCHOOL :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조선학교의 기록 Part.2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60만번의 트라이로 제 1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CGV 무비콜라주 배급지원상을 수상하였다.

피부색깔=꿀색 (배리어프리* 버전)

웅, 로랑 브왈로 | 벨기에, 프랑스 |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75분 | 12세 관람가

7.26(토) 20:30 야외마당 | 7.27(일) 14:00 교육실(+감독과의 대화 하이라이트 영상)



어디서도 나는 이방인 누구와도 다른 어른아이. 국적 벨기에, 서양인 양부모 밑에서 자란 한국인. 입양 어머니에게 '썩은 사과'로 불렸던 반항아. 부모의 관심을 잃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까 두려웠던 소년 '웅'. <피부색깔=꿀색>은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았던 그의 가슴 저린 성장기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 삶이 가로막혔다고 느끼는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감독은 어떻게 그 먼 곳까지 보내지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담담히 고백하고 있다. 성공한 만화가가와 감독이 되어서도 떨치지 못하는 마음 속 깊은 곳의 그리움. 중년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벨기에에서도, 이곳에서도 이방인이다.



Director **웅 Jung(전정식)**

1965년생. 5살 무렵의 한국 이름 전정식. 벨기에에 입양된 후 지금껏 불린 이름은 '정식(Jungsik)'에서 따온 '웅(Jung)',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배리어프리영화(barrier-free)란? 말 그대로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영화들로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대사(화자정보포함) 및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어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피부색깔=꿀색> 배리어프리버전은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공유가 화면해설에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 배리어프리영화를 경험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영화를 즐기며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7월 27일(일) 교육실 상영에는 웅 감독과의 대화(GV) 하이라이트 영상이 함께 상영됩니다.

나는 노래하고 싶어

오정훈 | 한국 | 다큐멘터리 | 67분 | 12세 관람가

7.26(토) 15:30 소극장(+감독과의 대화) | 7.27(일) 16:30 소극장 (+다문화 노래단 '몽땅' 공연)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모여 꾸려진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단원들은 12월 첫 프로모션 공연을 앞두고 한창 바쁘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지닌 단원들은 매일 모여 발성 연습을 하고, 새로운 곡을 만든다. 아직은 한국어도 서툴고, 서로의 문화가 낯설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이 과정이 그들은 행복하기만 하다.



Director 오정훈

1994년 독립다큐멘터리 제작 집단 푸른 영상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으며, 2001년까지 <약속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세 발 까마귀>, <낙선> 등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에서 미디어교육실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과 더불어 인디다큐페스티벌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레옹

이기영 | 한국 | 애니메이션 | 13분 | 전체 관람가

7.26(토) 15:30 소극장(+감독과의 대화) | 7.27(일) 16:30 소극장 (+다문화 노래단 '몽땅' 공연)

자신의 몸 색깔이 다른 동물 친구들과 달리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사실을 안 카멜레온 레옹은 큰 소외감을 느낀다. 레옹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몸 색깔을 가지고 싶어 자신만의 몸 색깔을 찾기 위한 머나먼 여행을 시작한다. 결국 레옹의 방황의 끝은 좌절이었지만, 그와 동행한 바람님의 도움으로 몸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발견과 인정과 자존감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음에도 행복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존재도 있다는 사실에 위안과 용기를 얻는다.



Director 이기영

이기영 감독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콘텐츠클 아티스트레지던스 프로젝트로 2D기법의 단편동화 애니메이션 <레옹>을 2010년 애니메이션전공 학생 16명과 제작하였다. 이어 3번째 단편 동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학생들과 현재 제작 중에 있다.

SECTION II. 아시아인 디아스포라

“아시아인 디아스포라”에서는 두 편의 싱가포르 영화를 선보입니다. 2013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 수상작이기도 한 <일로 일로>는 싱가포르의 한 중산층 가정에 들어오게 된 필리핀 출신 가정부 테레사가 주인공으로, 돈벌이를 위해 가족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 노동에 종사하는 한 여성을 통해 이주노동과 이주여성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던지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영화 <싱가포르에게, 사랑을 담아>는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된 뒤 수십 년 간 타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주인공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단한 망명자의 삶과 그림에도 가지지 않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일로일로

안소니 첸 | 싱가포르 | 드라마 | 99분 | 12세 관람가 7.26(토) 14:30 교육실 | 7.27(일) 18:00 교육실

많은 필리핀 여성들처럼 테레사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싱가포르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림씨 가정에 가정부로 취업한 테레사는 골칫거리 아들 잘라와 독특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혼 혼한 인정의 그 관계가 위협 받는 것을 느낀다.



Director 안소니 첸 Anthony Chen

안소니 첸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니안폴리테크닉 영화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전공했고, 영국 국립영화학교에서 연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단편으로 <G23>(2004),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른 <Ah Ma>(2007), <던스트>(2008), <디스턴스>(2010)와 <리유니언 디너>(2011)가 있다. <일로 일로>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싱가포르에게, 사랑을 담아

탄 핀핀 | 싱가포르 | 다큐멘터리 | 70분 | 12세 관람가 7.26(토) 19:00 교육실 | 7.27(일) 16:00 교육실

싱가포르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추방된 사람들이 있다. 돌아켜보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30년이 넘도록 이들에게 타향살이를 강요한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싱가포르는 여전히 사랑하는 조국이다. 영화는 이들이 조국에 보내는, 답장 없는 연서이다.



Director 탄 핀핀 Tan Pin Pin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MFA 취득. 다수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무빙 하우스 Moving House>(2001)는 아시아 디스커버리 채널에 방영된 최초의 싱가포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싱가포르 가가 Singapore Gaga>(2005)는 싱가포르에서 극장 개봉을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였으며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베를린의 세계문화전당에 초청 상영되었다.

SECTION III. 디아스포라 단편 모음 1

“디아스포라 단편모음 1”은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단편영화들을 모았습니다.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A Purple Man>과 아마도 역대 가장 당차고 자존심 강한 탈북여성이 주인공인 <명희>, 재일조선인 3세 감독이 직접 만든 재일조선인의 이야기 <GALAPAGOS>가 상영됩니다.

7.26(토) 18:00 소극장(+감독과의 대화) | 7.27(일) 12:30 소극장 (+감독과의 대화)

A Purple Man

김탁훈, 유진영, 류진호, 박성호 | 한국 |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13분 | 12세 관람가

북한에서 태어난 18살 김혁, 삶을 위해 중국을 넘나들다가 북한군에 잡혀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된다. 특별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북한을 탈출하여 지금은 한국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음식이 있는 뷔페에서 특히 좋아하는 삶은 달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가끔은 자신이 처한 한국의 생활난이나 차별에 좌절한다. 그는 북한은 빨간색, 한국은 파란색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인가? 보라색 사람인가? 정치적인 문제와는 상관없는 탈북자 김혁의 인생 이야기다.



김탁훈



유진영



류진호



박성호

Director 김탁훈, 유진영, 류진호, 박성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애니메이션 제작 석사 출신의 감독들로 현재 Tak Toon Enterprise Inc의 감독이다.

명희

김태훈 | 한국 | 드라마 | 30분 | 12세 관람가

북한에서 온 명희는 수진, 미정, 미경을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하지만 사소한 말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명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Director 김태훈

2005년 <나이트크루징>, 2006년 <물수제비>, 2009년 <졸업유감> 그리고 2014년 <명희>를 제작하였다. <명희>는 제19회 인디포럼 폐막작으로 상영되었다.

GALAPAGOS

이달야 | 일본 | 드라마 | 20분 | 12세 관람가

어느 커피숍. 노조미는 재일한국인 남자 친구와의 결혼을 상담하기 위해 옛 친구 히로토를 만난다. 배타적인 생각으로 그녀를 반대하는 히로토. 그때 옆 자리에서는 사토와 도시코가 담소한다. 국수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토와 한국 사극에 빠져 있는 한류 아줌마 도시코. 커피숍 내에는 그 외 말없이 앉아 있는 여자 한 명과 바쁜 웨이트리스의 모습. 비가 와 서서히 어둠에 휩싸여 가는 커피숍. 그러다 갑자기 사건이 터진다.



Director 이달야

2011년 <아이고! 내 국적은 하늘나라다> 연출하여 대전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 Mexi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 Bronze palm award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SECTION IV. 디아스포라 단편 모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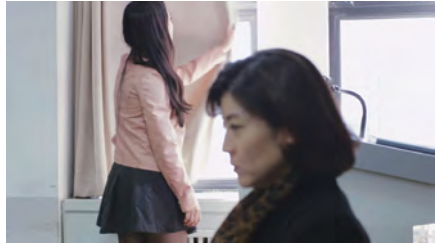
“디아스포라 단편모음 2”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이주민의 처지를 묘사하는 단편영화들과 어딘가로 이주한 한국인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7.26(토) 13:30 소극장 | 7.27(일) 20:30 야외마당(+감독과의 대화)

수업

박남원 | 한국 | 드라마 | 11분 | 전체 관람가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발표하는 대학 수업 시간. 동남아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사이코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발표하자, 교수는 진정성이 없다며 본인의 진짜 이야기를 쓰라고 다그친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교수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다.



Director 박남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졸업. 2000년 <모텔>로 2001년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 출품하였다. 이후 <신고>, <최보은을 만나다>, <우리집에 왜 왔니?>, <가물치> 등을 제작하였고, 2013년도 <수업>을 연출하여 2014년도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출품, 2013년도 제 39회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출품하였다.

춘정

이미랑 | 한국 | 드라마 | 29분 | 전체 관람가

춘정은 이곳에서 당신과 정 붙이며 살고 싶다.



Director 이미랑

2005년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와 2007년 <목욕>을 연출했다. 2010년 <시>의 스크립터로 참여했으며 <춘정>은 세 번째 단편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

김유리 | 한국 | 애니메이션 | 10분 | 전체 관람가

아직은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 요란한 자명종소리에 피로가 덜 풀린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기러기 아빠는 새장을 나서 출근길에 오른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뻘뻘한 일상을 마친 기러기 아빠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술로 달래고 오늘도 홀로 잠을 청한다.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힘겹게 눈을 뜬 기러기 아빠의 몸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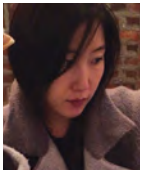
Director **김유리**

〈기러기 아빠〉(2013)는 2012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제작지원작으로 2014 부산단편영화제, 2014 Cartoons on the Bay, Anima Mundi Film Festival에 출품되었다.

디어 파파

강민희 | 한국 | 드라마 | 12분 | 전체 관람가

딸깍, 카세트테이프의 녹음버튼을 누르고 아이들의 말과 노래를 담기 위해 애쓰는 한 여자가 있다. 녹음 내내 아이들은 천방지축 까불대고... 한바탕 고군분투를 마친 후, 여자는 남편에게 편지를 쓴다.



Director **강민희**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연출전공 석사 휴학. 〈남영동 1985〉, 〈부러진 화실〉 등 여러 상업영화에서 스크립터로 활약했다. 〈디어파파〉는 제3회 CJ영화페스티벌 영화부문 우수상, 제34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부문 본선, 제11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초청상영 되었다.

SECTION V. 그들이 말하다

다문화 영상워크숍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소개되는 “그들이 말하다”에서는 인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기획단 워크숍 작품 2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공동체 아이다마을의 영상제작 워크숍 작품 1편,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다문화영상아카데미 작품 1편 등 총 4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7.26(토) 13:00 교육실 | 7.27(일) 14:30 소극장(+감독과의 대화)

뽕구

싯나이 | 한국 | 다큐멘터리 | 14분 | 전체 관람가

인간과 동물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뽕구라는 강아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이야기



Director 싯나이 Aung Sist Naing

제 이름은 싯나이입니다. 저는 2011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해 미얀마센터와 인천이주노동자미디어교육 기획단이 함께 만든 '인천이주노동자미디어교육-발언하다 season4' 교육을 수료했고, 이를 통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상에 관심이 많고 촬영과 편집을 조금 배웠습니다. 나중에 미얀마에 갈 때 영상제작 관련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더 배우고 싶습니다.

My life

뗏쨌 | 한국 | 다큐멘터리 | 10분 | 2013 | 전체 관람가

좋은 것만 상상했던 한국의 이주노동 생활.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그래도 지금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



Director 뗏쨌 Thet Zaw

미얀마 출신의 뗏쨌은 2013 인천이주노동자미디어교육-발언하다 Season 4 수료하고, <My Life>를 완성했다. 현재는 고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



우리집

권정연, 문경연 | 한국 | 다큐멘터리 | 15분 | 전체 관람가

80대 할머니와 20대 손녀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이들의 일상 속에서 낯설고도 익숙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Director **권정연**

재미교포 2세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으며 2010년에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몰랐던 한국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려우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져 이곳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심했다.



Director **문경연**

이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2008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어 자원 활동가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중국어교회 통역봉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며 각기 다른 문화의 "결"이 만나는 지점들을 찾기 위해 세상의 공부도 함께 하는 중.

명하이야기

레이젤 | 한국 | 다큐멘터리 | 11분 | 전체 관람가

이 작품은 미디어 교육을 받아 결혼 이주여성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어 영상을 찍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작품이다. 명하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때문에 엄마가 밉다. 하지만 엄마의 필리핀 공동체인 아이다 마을의 활동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바꾸게 된다.



Director **레이젤 Leizel Villaranda**

레이젤 감독은 필리핀 이주여성으로 아이다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영상제작교육에 참석해 내 자녀이야기를 주제로 다룬 <명하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명하이야기>는 제7회 인천여성영화제, 제6회 이주민영화제 출품하여 상영되었다. 이주 여성들이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후속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부대행사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공연

7월 27일(일)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는 노래하고 싶어> 상영이 종료 된 후, 다문화·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일 시 : 2014. 7. 27(일) 오후 4시 30분 영화 상영 종료 후

장 소 :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소극장



몽땅은 8개 나라(한국, 몽골,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티벳, 필리핀, 미얀마)의 다문화 구성원들로 이뤄진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 다양성을 존중하는 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영화가 책을 만났을 때

6월 28일(토)부터 7월 1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인천연수도서관에서 진행하였던 사전 특별 프로그램 ‘영화가 책을 만났을 때’가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기간 동안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영화와 책의 특별한 만남을 또 한 번 이어갑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이주민들에 대한 토크를 나누게 될 이번 만남은 영화 <레옹+나는 노래하고 싶어> 상영이 종료 된 후에 진행됩니다.

일 시 : 2014. 7. 27(일) 오후 6시 30분

장 소 :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소극장

강의주제 :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에 대하여

함께 읽을 책 :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이주여성인권포럼, 오월의봄 펴냄)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는 한국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공존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강사소개



박명동 (독서에세이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인 행복을」 저자)

1972년 부산 출생. 2000년 경향닷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영화와 공연 칼럼을 쓰고 있다. 중앙일보 정강현 기자와 인문, 영화, 문학, 시가 어우러진 팟캐스트 《소소한 책수다》를 진행 중이다. 삶의 모토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인 행복을’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부대행사

■ 전시 : <피부색갈=꿀색>&웅(전정식)

<피부색갈=꿀색>의 원화 스케치, 캐릭터 디자인, 콘티북 등과 세계 각국 개봉 포스터, 동명의 원작 만화의 원화 스케치 및 감독의 어린시절 가족사진과 입양 당시의 자료 등, 웅 감독이 제공한 귀중한 자료들을 관객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해외 입양 어린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전시는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 2014. 7. 26(토)~27(일)

장소 :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어린이 미술관

후원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아우인형 입양 프로젝트' (체험) + '내 동생을 소개합니다' (전시)

제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유니세프와 함께 아우인형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아우인형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아우'를 만들어 입양하고 가족이 된 아우를 소개하는 전시 프로그램 '내 동생을 소개합니다'를 통해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 대해 알아보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4. 7. 26(토) 오후 2시 ~ 4시

장소 :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어린이 미술관

참가인원 : 30 가족(사전신청)

준비물 : 아우인형 옷을 만들 헌 옷, 자투리 천 약간

※ 아우인형은 영화제 기간인 27일 오후 6시까지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어린이미술관에서 전시되며 이후 개별로 찾아가면 됩니다.



연수구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찾아오시는 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고개로 345-42(동춘동 926-8)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이마트와 스퀘어원 사이에 위치

교통편

지하철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 1번 출구 하차 후 우측 50m 거리에 위치(도보2분소요)

버스 정류장 (동막역→동춘역 방향) 65, 112 103-1, 740, 522, 753, 51-1, 909, 908, 303, 1300, M6724
정류장 (동춘역→동막역 방향) 112, 522, 909, 908, 103, 303

주차안내 연수구 문화의 집 야외 주차장 이용(무료)

문의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032-435-7172** 연수구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032-749-6884~5**

도움주신 분들

곽명동 저널리스트
권지원 미디어데이
김 영 (주)미루픽쳐스
김규환 인천교통공사
김대희 인천교통공사
김명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라
김성일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김수정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인화 (주)인디스토리
김화범 (주)인디스토리
한소명 (주)인디스토리
김해공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임고은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
김혜원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최유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김효정 연수도서관
녕 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기획단
문형욱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펀드
박정현 한국영상자료원
최영진 한국영상자료원
박찬진 진미디어
양희찬 진미디어
신현철 연수구청
정재환 연수구청
야마다 다카코 Roots2 film 연구모임
정지은 인천문화재단
조윤주 어뮤즈
최지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CONTACT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402-835)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68(주안동 주안필플라자) 801호

전화 | 032-435-7172

팩스 | 032-435-7173

홈페이지 | www.ifc.or.kr

발행 |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인쇄 | 다인아트

**Diaspora
Film Festival**

